

DDA, 2007년 6월 농업협상 동향

주 현 정*

2007년 4월 30일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DDA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1차 문서에 이어, 5월 25일 2차 의장문서가 발표되었다. 이 문서에서는 1차 문서에 언급되지 않은 열대작물, 저개발국가등에 대한 사안 등 그동안 협소하게 다루어져 온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올해 안에 본 협상을 마무리할 핵심멤버인 G-4는 파리에서 1차 협상을 가지고 6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포츠담에서 2차 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포츠담 회담은 결렬되었다.

이로 인하여 6년간의 긴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목적은 난관에 봉착해 있으며 의장의 의견이 향후 협상의 향로를 좌우할 것이다.

1. 펠코너 의장의 2차 의장문서 발표

WTO농업협상그룹의 크로포드 펠코너(Crawford Falconer)의장은 5월 25일 협상에서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 윤곽을 그린 2차 의장문서를 발표하였다. 2차 의장문서 역시 1차 문서와 마찬가지로 장기화되고 있는 협상의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한 의장의 적극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hj1013@krei.re.kr 02-3299-4262

특히, 2차 문서에서는 협상의 핵심사안인 관세감축, 정부보조 감축 등이 아닌 1차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수입물결에서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는데 이용되는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열대작물의 개방화 관련 문제, 무역특혜의 약화에 관한 논의 등이 포함되었다.

문서에서는 특별품목에 대해 소규모취약국가(Small, Vulnerable Economies), 최빈개도국, 그리고 최근에 WTO에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였다. 반면,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그린박스의 농가보조, 상품, 관세단순화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대표단의 반응은 다양하다. 대다수가 1차 문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기하였다. 일부 개도국은 이 문서가 선진국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반면, 몇몇 선진국 역시 비판적이었는데 의장이 생각한 가능한 합의점은 너무 폭이 넓다고 주장했다. 어느 대표단은 의장문서가 1차 문서보다 좀 더 완고해졌다고 한다.

1.1. 특별세이프가드(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

펠코너 의장은 특별세이프가드에 대해 그가 협상대세(Centres of gravity) 또는 가능한 합의경계점을 정의할 때, 너무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었다고 경고하고, SSM의 적용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SSM은 개도국에게 WTO원칙에서 현존하는 SSG(Special Safeguard)보다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농촌개발, 식량안보 문제의 경우 등의 특정한 환경 시에 SSM의 조건은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그는 증가된 세이프가드 관세는 실질적인 SSM을 지지하는 G-33에 의해 제기된 12개월보다 더 짧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2. 열대작물 및 대체작물(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회원국들은 여전히 열대작물의 교역에 대한 완전한 자유화를 이행할 것인

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협상국들은 UR기간동안 발전된 이러한 상품의 지시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추가로 1/3에서 1/2로 확장하는 옵션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품목의 관세대우에 대해 팰코너는 현행 25% 이하는 무관세로 25% 이상은 85%로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3. 특혜잠식(Preference erosion)

팰코너는 바나나, 설탕 등의 열대작물이 특혜잠식과 관련한 현안에 가장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의장은 멤버들에게 특정 시장에서의 특별품목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자유화범위를 검토·측정할 것을 제안했다. 5년간 넓게 퍼진 1자리 수인 종가의 관세감축은 중요한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 높은 감축은 특혜 마진, 더 긴 이행 기간, 또는 가능하게 다른 비교역적인 문제에 기반한 해결책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1.4. 그린박스 보조(Green box subsidies)

개도국의 토지개혁프로그램과 정부 서비스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법적 서비스는 이견이 없다. 비록, 농촌 발전과 인프라 조항은 좀더 논란이 많다. 팰코너는 또한 개도국이 그린박스에서 허용되는 식량안보의 목적을 위한 식량 재고 취득의 소비를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지지했다.

한편, 개도국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축산물과 농작물이 자연재해에 의해 파괴될 경우 평균 생산의 30% 이하의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 그린박스 규정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의장은 설명하였다.

개도국은 팰코너가 부유한 국가의 보조금지불 규정-최소한의 교역왜곡 효과 이상을 가지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개도국 중 G-20은 어떤 보조는 그린박스에 의해 보호되어 지불되어지지만 실제 교역과 생산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1.5. RAMs(Recently-Acceded Members)

중국을 비롯한 최근의 신규가입한 회원국은 관대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펠코너는 RAMs별로 다른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 최근에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마케도니아는 한층 더 나아간 DDA협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최근에 가입한 저소득국가인 몰도바(루마니아에 인접한 공화국), 키르키스 공화국등은 보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인 RAMs는 보통 개도국이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삭감이 허용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각각의 구간에 5% 이하로 관세감축을 허용 받았다. 그러나 펠코너는 50%의 신축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감축의 적은 신축성 때문에 펠코너는 SSM과 특별품목에서 추가의 신축성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다.

1.6. 소규모 취약국가(SVE; Small, Vulnerable Economies)

펠코너는 소규모 취약국가 자신들이 제시한 그룹의 정의를 받아들였다. 소규모 취약국가는 세계 상품교역의 0.16% 이하, 산업용품 교역이 0.1% 이하, 농산물 교역이 0.4%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고 정의를 하였다. 펠코너는 특별품목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의 신축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상품의 숫자와 대우에 관한 합의의 부족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문이 작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1.7. 기타의견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경우 가공품과 원자재에 관세를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 관건이며 논의 중이다.

최빈개도국(LDCs; Least-developed countries)에 대하여 펠코너는 선진국은

LDCs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이행기간 초기 97%를 무관세·무쿼터로 실시하고 이행기간 말에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8. 회원국의 반응

몇몇 회원국들은 팰코너의 의장 문서안에 대하여 실패한 것이라 했지만 다른 멤버는 현 상황에서 협상의 합의에 이르기 위한 좋은 노력이라 평가했다.

2. G-4 포츠담 회의

G-4국(EU, 브라질, 인도, 미국)은 DDA협상에서 난관에 봉착한 의견 차이들을 해결하고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회담을 가졌다. 포츠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차로 파리에서 회의를 가진 후 6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포츠담에서 본격적인 회의를 가졌다. DDA협상의 중추적인 멤버인 G-4의 결과에 따라 협상의 향후 방향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년 동안의 DDA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시도는 카드로 만든 지처럼 불안정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G-4의 4개국은 주요 협상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각4개국의 의장은 DDA는 위험한 상황은 아니나 올해 안에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하였다.

제네바의 라미 총장은 G-4국은 포츠담에서 그들의 협상위치에서의 차이에 가교를 놓기 위하여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협상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위이지만 WTO의 150개 멤버 중 하나의 시도일 뿐이며 필수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EU의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피터 만델슨은 이것이 도하라운드협상의 끝은 아니다. 하지만, 포츠담 회의의 실패는 협상의 성공적인 결론에 심각한 의문점을 낳는다.

2.1. 후퇴(Setback)

브라질 외교부장관인 셀수 아모링(Celso Amorim)은 포츠담 회의는 후퇴현상이며 칸쿤, ACT II의 재연이었다고 미국과 EU를 비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잔 스왑(Susan Schwab), 미 농무부장관인 마이크 요한슨(Mike Johanns)은 포츠담회담의 실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USTR은 워싱턴은 도하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G-4간의 실패는 협상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였다.

EU의 농업집행위원인 Boel은 G-4의 진전은 없다고 표명하였다. 협상이 무산된 주 요인은 EU와 US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 이 둘 사이의 의견대립이 좁혀지지 못함에 있다. 비농산물 분야에서도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 발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잔 스왑, 마이크 요한슨은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다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라미총장을 만날 것이다.

라미 사무총장은 포츠담 회의 실패로 DDA협상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하였다. 의장의 모델리티 초안은 7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Washington Trade Daily Vol.16. no 124/125

BRIDGES Weekly Trade News Digest Vol.11. No.19 발췌정리